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광주·전남 곳곳 축제 분위기

탄핵 선고 현장 이모저모

‘8:0 파면’ 적은 천·태극기 들고
광주시 ‘광주정신’ 현수막 걸고
각자들의 방법으로 파면 환호
4·3 사건·세월호 추모도 함께
폐창 속 광장에는 유쾌함 가득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됐던 지난 4일 헌법재판소와 광주·전남 곳곳에서는 “국민이 이겼다”면서 자축하는 등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광주 5·18민주광장과 서울 헌법재판소 주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탄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신만의 방법으로 열린 응원을 펼쳤다.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을 찾아 탄핵 인용 결과를 지켜본 한 지역민은 함께 온 반려견에 ‘전쟁 선동 평화 파괴 윤석열 탄핵’ 문구가 적힌 빨간 옷을 입히고 광장을 돌아다니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들은 움츠러드는 기색 하나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광장을 활보하며 구호를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 문구가 적힌 태극기를 휘감고 깃발을 흔들거나 직접 만든



지난 4일 여수 흥국체육관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지켜 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윤석열 가면을 테이프로 머리에 고정하고 돌아다니며 환호했다.

광주시도 현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자 전일빌딩 내 계층한 ‘광주가 왔다! 파면이 온다’ 현수막 대신, ‘지켰다 민주주의! 고맙다 광주정신!’으로 바뀌는 이벤트를 개최해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시민들은 파면 결정에 서로 부둥켜안고 팔짝팔짝 뛰었고 오랜 기간 일상을 버텨온 국민들의 환호 퍼포먼스가 잇따랐다.

한복을 입고 온 시민들은 ‘8대0 파면’이 적힌 천과 태극기를 들고 다니며 시위를 즐겼고 윤석열 탈을 쓴 채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남성이 카메라 세례를 받기도 했다.

야구를 좋아하지만 탄핵으로 마냥 즐길 수 없다며 유니폼을 입고 탄핵 심판을 보러 나왔다가는 학생들, 탄핵 집회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응원봉에 세월호와 제주 4·3사건 77주년을 추모하는 동백꽃을 붙여 꾸미고 현장을 찾는 시민들도 파면 결정에 축하



광주시 광산구 성덕고 학생들이 지난 4일 민주시민교육 수업 도중 현재의 파면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의 환호성을 질렀다. 오랜 기간 집회에 참석하면서 집회 때마다 틀어졌던 ‘아모르파티’에 맞춰 ‘윤석열 파면!’을 따라부르는가 하면,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부석순’의 ‘파이팅해야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에 맞춰 대창을 부르며 함께 연대하는 광장에서 유쾌함으로 일상의 복귀를 축하했다.

‘경축 윤석열 탄핵 기념’ 수건을 제작해 온 이들은 파면 선고 직후 수건을 돌리며 자축했고 ‘파면이여

오라’, ‘민중이 꿈꾸는 거리입니다’ 등을 횡단보도에 분필로 쓰거나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가 적힌 현수막에 릴레이 문구를 적으며 기념하기도 했다.

‘소녀가 온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5·18’ 등 광주를 상징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었고 일부 시민들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며 기뻐하기도 했다. /광주=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울=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야! 대신 제 이름 불러 주실거죠?”

담양서 외국인 노동자 이름 적힌 안전모 전달식

“안전모에 제 이름이 붙은 건 처음이네요.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기뻐요.”

6일 오전 담양안전체험교육장에서 국기와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안전모를 건네받은 이주노동자 안토(27·사진) 씨는 “다음 주부터 이 안전모를 현장에서 직접 써볼 생각”이라며 웃었다.

이날 담양에서 열린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체험’은 단순한 안전교육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주노동자들에게 ‘존중받는 경험’을 선사하는 자리였다.

광주·전남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이름 대신 ‘야’ 또는 ‘인마’로 불리면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산업재해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는 노동 현장 문화를 바꾸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

미얀마,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3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가상 안전체험을 마친 뒤, 각자의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직접 받아 착용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이름으로 불리고, 각자의 존재를 인정받는 경험을 했다. “이제는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참가자들 사이에 퍼졌다.

문길주 전남노동인권센터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이름대신 ‘야’, ‘거기’ 등으로 불려지던 이주노동자들이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에 이주노동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현장에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다리전도 체험, 개구부 추락, 생명을 살리는 안전대 체험 등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안전 체험을 진행하고 전기안전체험, 개인보호구 착용법 교육 후 외국인 근로자 보호구 키트도 전달받았다.

2019년 한국으로 와 버섯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39세 박미향(여·캄보디아영 소말) 씨는 “VR가구도 끼고 하니 실제 사고 현장 같아서 긴장이 됐다”며 “작업현장에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이렇게 안전한 보호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담양 축죽원을 함께 둘러보며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국적을 넘어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노동권익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했으며, 하반기에는 전남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2차 체험이 이어질 예정이다. /담양=김진아 기자 jinggi@

광주·전남 ‘완연한 봄’…일교차 커요

아침 안개 끼는 곳도

파면 이후 완연한 봄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주 평년(아침 최저기온 3~8도, 낮 최고기온 15~19도)보다 2~5도 가량 높은 따듯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0~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7~23도로 예상된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내륙지역은 20도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 일교차에 유의해야 한다.

7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며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면서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일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오후부터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이번주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9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고 10일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산불 위기경보 ‘심각’…순천 산불 50분만에 꺼져

25일 전국에 산불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6일 순천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한 아산에서 불이나 50분 만에 꺼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는 신고 69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접수된 뒤 지역 산불진화대, 임차 헬기 4대 등을 동원해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쏟았다. 순천 소방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경찰청
 금융감독원
 소방안전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